

# 느림·율빙·추억... 봄소식과 함께 남도축제 활짝 펼쳐진다

광주일보 선정 최우수 지역축제 올해 행사 내용과 일정



## 체험프로 풍성... 느리게, 웃으며 걸어볼까

### 완도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이미 전국적인 명소가 돼버린 청산도의 구들장논이 전국 최초로 국가농업유산으로 선정되면서 올해 슬로우 걷기 축제의 참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시도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2013년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는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계속된다.

구들장논 중요농업유산지정 선포식, 느림 메시지 선포식 등 공식 행사는 4월13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관광객들을 맞는 청산도 주민들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1일부터 느림보 우체통 편지쓰기, 느림 풍경 담아오기, 소원의 들 체험, 서편제 주인공

처럼 찍기, 슬로 푸드 체험, 조개공예 체험, 슬로길 보물찾기 등 15개의 슬로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동시에 슬로사기 청산도 안 사진전, 슬로 크리 전시, 느림 낭만 콘서트, 소 쟁기질 재연, 청산도 주민 사진·미술전 등 11개의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준비돼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이외에도 청산사진관, 추억의 다방, 슬로장터 명품관, 완도 웃음 페스티벌 홍보관, 슬로장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졌다.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슬로길 11개 코스(42.195km)를 걷는 '느리게 걷고 웃으며 걷다 보면 어느덧 완보하는 청·산·완·보' 참가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청산도 슬로길은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로,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 인증 '세계 슬로길 1호'로 각각 지정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지난 2007년 연간 9만명에 불과한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30만명을 넘어섰으며, 축제가 열리는 4월이면 섬 주민(2559명)의 30배에 육박하는 7만 여명이 찾고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있는 그대로 최고의 자연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청산도를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기를 기원한다"며 "관광객들이 가장 편안하게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손길 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 물장구 치고 물총 쏘고... 뗏목타기 추가

### 장흥 정남진 물축제

지상 최대 물놀이가 전남 장흥에서 벌어진다. 전남 중부권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정남진 물축제는 7월26일부터 8월1일까지 1급수 맑은 물을 자랑하는 탐진강과 힐링메카로 떠오른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 축제는 올해 소방차, 물대포, 물바가지, 물총 등을 사용해 벌이는 '한바탕 물 난장', 축제가 한 동안 하루 1000여 명이 동시에 탐진강에 들어가 뱃잡어·잉어·붕어·메기 등을 잡는 '맨손 물고기 잡기' 등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 바 있다.

올해는 기존 프로그램에 뗏목타기 경연대회, 전국생수자랑 콘서트, 물 이용 생활편천사 체험 등이 추가됐다. 물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정남진 물 포럼이 개최되는 것은 물론 물 과학관도 운영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을 보인다. 무지개 천연 약초탕에도 들어가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야외물놀이, 각종 수상레저프로그램, 슬로시티 한바탕 체험행사, 생약초 한방 체험관, 당신도 예술가, 물 축구, 공예품 만들기, 치어방류 등을 통해 어른과 어린이 모두 한바탕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유니세프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합수식, 전국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

회 등도 축제기간 계속된다.

지난해 장흥 정남진 물축제에는 장흥 인구(4만2000여 명)의 20배가 넘는 무려 9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장흥군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올 초부터 교통소통, 숙박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명흠 장흥군수는 "5월14일 안에 여름휴가를 보내는 외지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며 "장흥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토요일장은 물론 편백숲 등 다양한 자원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흥=김용백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한류·K팝 대폭 늘려 청소년층 흡수

### 동구 7080총장축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광주의 대표축제 동구 7080 총장축제는 오는 10월8일부터 13일까지 총장로와 급남동 등 광구 구시가지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400만명이 찾아 지역민 참여도가 가장 높은 축제로 명성을 얻은 총장축제는 올해 대변신을 시도한다.

중년층 이상의 향수를 자극하는 형식이며 추억의 청소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한류, K팝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앞두고 아시아의 문화를 집약할 수 있는 행사들도 대거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동구는 이미 아시아문화중심도

시추진단과 협의를 갖고 연계전략을 고민중이다.

축제의 주제를 공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내에 기획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프로그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3년 연속 국가지정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된 추억의 7080 총장축제는 그동안 전시·체험·공연·경연·퍼포먼스 등 6개 부문 3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거리 축제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축제 기간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외지 관광객이 30여만명이나 늘어나기도 했다.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 등 추억을 소재로 한 독특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추억 & Asia (아시아)'를 주제로 중국, 일본 등 14개 국가의 문화·예술 공연팀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 지자체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이끌어가는 등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과거 회상에만 멈추지 말고 미래도 함께 바라보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이 같은 구정의 방침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올해 총장축제에서는 한류와 아시아 문화를 엮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세계 차 품평대회 열어 보성 녹차 홍보

### 보성 다항제 녹차대축제

초록의 녹차 밭이 끝없이 펼쳐진 보성에서 열리는 다항제 녹차대축제는 올해로 39회째를 맞는다. 오랜 역사만큼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명품 축제의 반열에 올랐다.

오는 5월14일 오후 2시 한국차소리문화공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6개 분야 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성군 일대에서 6일간 계속된다.

기간이 지난해보다 하루가 늘었으며, 15일을 관광객과 군민 화합의 날로 집중 운영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14일 티 월드 캠프 피인식, 15일 다신제, 16일 제2회 티 아트

페스티벌 및 다항 백일장, 17일 전국 학생차 예절 경연대회와 무아차회, 18일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과 전라남도 댄스경연대회, 19일 자매단체 문화교류 및 관광객 어울마당과 제9회 녹차 마라톤대회 등이 다.

국제 무대에도 인정받고 있는 보성 차를 알리기 위해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세계 차 품평대회도 축제기간에 열 예정이다. 국제 차 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녹차 북 콘서트 등 이색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순천정원박람회와의 연계를 위해 박람회장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셔틀버스 4~5개 노선을 운영하는 등 관광객 유치 방안도 수립했다.

보성군은 주한 외국대사 및 외국 유학생

초청 캠퍼, 광주·전남 원어민 강사 초청, 명사와 함께 떠나는 차밭 나들이 등 지난해 성과를 뒀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고 행사장 내 3만원 이상 물품구매 시 녹차탕, 숙박, 식당 할인권을 지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중해 보성군수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보성 녹차를 어떻게 하면 알리내고 그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지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물이 바로 다항제 녹차대축제"라며 "외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보성을 위해 지난해 축제가 끝난 뒤 곧바로 올해 축제를 준비했다"고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 3월 23일 광양매화축제 등 전남 38개 축제 일정 확정

남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올해 전남의 축제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전남도는 5일 "다음달 23일부터 9일간 남도의 봄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전남지역에서 모두 38개의 주요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

다.

마지막 축제는 12월 개막해 다음해 1월까지 45일간 펼쳐지는 보성 차밭 빛 축제다.

〈표 참조〉

전남도는 축제 개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동 홍보 마케팅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도가 운영하는 '남도여행 길잡이' 등 관광포털 사이트에도 축제 일정 및 내용을 소개해 온라인상 홍보도 지원한다.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는 1개 시·군 1개 대표 축제를 선정하고 연발 성과 평가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13년 전라남도 지역축제 월별 개최 계획			
1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	3.23~3.31	3월
2	구례산수유꽃축제	3.29~3.31	3월
3	완도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	4.1~4.30	4월
4	영암왕인문화축제	4.5~4.8	4월
5	목포유일산꽃축제	4.13~4.14	4월
6	고흥우주항공축제	4.18~4.21	4월
7	신안들림축제	4.19~4.28	4월
8	나주흥어축제	4.20~4.22	4월
9	진도 신비의 비릿길축제	4.25~4.28	4월
10	함평나비대축제	4.26~5.8	4월
11	완도장보고축제	5.3~5.5	5월
12	담양대나무축제	5.3~5.8	5월
13	보성다항제녹차대축제	5.14~5.19	5월
14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5.16~5.19	5월
15	곡성세계장미축제	5.24~6.2	5월
16	장성홍길동축제	5.24~5.26	5월
17	고흥농동불꽃축제	5월중	5월
18	여수거북선축제	5월중	5월
19	순천백년민속문화축제	5월중	5월
20	영광범성포만오제 및 굴비축제	6.13~6.16	6월
21	정남진물축제	7.26~8.1	7월
22	강진청지축제	7.27~8.4	7월
23	영광갯벌축제	7.27~7.28	7월
24	무안연꽃축제	7월중	7월
25	여수국제청소년축제	7월중	7월
26	목포해안문화축제	8.2~8.6	8월
27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9월중	9월
28	2013 영광대참축제	9월중	9월
29	곡성심정효문화대축제	10.3~10.6	10월
30	구례동천제소리축제	10월초	10월
31	보성서편제소리축제	10월초	10월
32	장성백안단풍축제	10월~11월중	10월
33	남도음식문화축제	10월중	10월
34	순천만갈대축제	10월말	10월
35	영인왕인문화축제	10.29~11.17	10월
36	함평대한민국국향대전	11월중	11월
37	구례 지리산 피어골 단풍축제	11.2~11.3	11월
38	보성차밭빛축제	12월중	12월

\* 전한글씨는 1시군 1대표축제(20개)